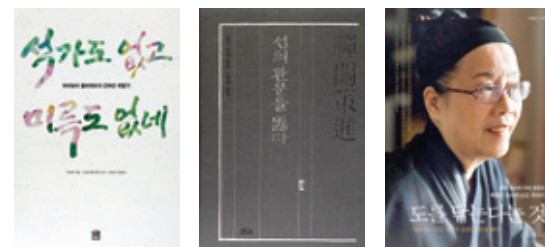


# 부처님오신날, 수행해서 부처님 됩시다



## 간화선에 대한 오해를 풀다 물리학자의 간화선 체험기

요즘 참선과 명상 등 마음치유에 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선과 명상을 통해 현대인들의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기는 더욱 급부상하고 있다.

전보다는 명상을 접하고 수행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들이 점차 다양화 되고 늘어가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 일반인들이 의욕을 갖고 실천하기에는 선과 명상은 한계점이 드러난다.

특히 간화선은 오해와 궁금증이 난무하다. 간화선이 특정한 법을 할 수 있는 전유물로 여겨지는가 하면, 선 수행자는 좌선외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간화선은 구도선이다. 화두는 한 가지만 들어야 한다 등 다양하다.

저자인 서강대 물리학 박영재 교수는 <석가도 없고 미륵도 없네>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을 진행하면서 그간에 겪었던 간화선 체험기에 대해 초보자들이 알기 쉽도록 간화선수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물리학적 관점도 함께 곁들여 선과 물리학의 상호관계 등 선의 여러 가지 측면도 함께 살펴보고 간화선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있다.

우선 저자는 일반인들이 흔히 간화선을 어렵다고 느끼거나, 산중의 스님들만이 하는 수행법이라 생각하는데 대해 “발심해서 좋은 스승을 만나 꾸준히 입실만 하면 누구나 원하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입실지도는 제자가 스승과 일대일로 만나 끊임없이 수행력을 점검받는 것으로 중국 남송시대에 확립됐다. 입실점검은 훗날 한국에 들어오면서 태고보우 선사와 백우경한 선사, 나옹혜근 선사로 이어오다 그 명맥이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이후 간화선법의 전통이 희미해지다 서산 대사를 거쳐 조선 말 경허 선사에 의해 선종의

흐름이 이어져 왔다. 저자는 입실점검에 대한 전통적 복원에 대해서도 함께 밝히고 있다.

또 한국이 간화선을 표방하나 목조선에 가까운 실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보통 화두는 한 가지만 들고 정진해야 한다는 것에 저자는 “오늘날 현대인들은 화두 하나만으로 수행을 그대로 따르기에는 무리가 크다”며 “뜻뜻미지근하지만 여러 화두들을 바꿔 가면서 서서히 제자 수행자의 본성을 격발시킬 수밖에 없다”고 당부한다.

이밖에도 “선의 목적은 화두타파가 아닌, 자신의 능력을 자유자재로 나타내면서 100% 본업을 수행하게 하는 수단이자 과정일뿐”이라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 더불어 나눔실천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수행의 최종 목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저자는 제자로서 선가에 입문하게 된 구체적인 과정과 체험들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참선 수행이 결코 어려운 수행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참선 수행은 종교와 종파를 초월해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제자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선을 단순히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체득하고 꾸준히 수행을 한다면 대자유인으로서 천하를 활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석가도 없고 미륵도 없네박영재 저음본북1만3800원

## 경계하는 채찍이 관문을 뚫다 운서 주평 스님의 수행 입문서

<선관책진>은 명나라 운서 주평 스님이 조사 여록과 경전에서 참선 수행자에게 거울이 될 만한 법어와 정진사례를 모은 수행 지침서다. 선불교에서는 ‘종문칠서(宗門七書)’라 해 <육조단경> <임제록> <벽암록> 등과 함께 가장 중요한 책으로 꼽힌다. <선관책진>은 선 수행의 입문서로서,

참선 수행을 갖 시작한 초심자들에게 더 없이 요긴한 책이다. 운서 주평 스님은 이 책을 엮을 때, 수많은 경과 법어와 여록 중에서 ‘처음 공부 길에 들어 어려웠던 일’, ‘중간에 공부하며 괴로움을 겪은 경우’, ‘마지막에 확철히 깨달은 일’을 고루 뽑아 엮었다.

이는 참선 수행 과정에서 밟게 되는 단계별 상황과 그 단계를 넘을 때마다 부딪치기 쉬운 여러 가지 마장을 두루 헤아렸기 때문이다.

그런 뜻에서 운서 주평 스님은 ‘선애어찌 관문이 있겠는가?’ 하면서도, 이 책을 엮을 때에는 참선 수행의 길이 참으로 어려움을 헤아려 수행자들이 여러 관문을 헤치며 오롯하게 나아가는 데 힘이 되고자 했다. 스님은 수행이 결여된 관선(狂禪)을 통렬히 배척하며 ‘실담계 참구하고 실담계 깨닫기’를 강조했다.

<선관책진>은 선의 마지막 관문을 뚫기까지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뜻으로, 스님은 75세에 이 책을 모두 엮어 늘 책을 지니고 다니며 수행을 다짐는 경책으로 삼았다고 한다.

당시 스님은 “한번 보면 마음을 북돋아 수행에 더욱 힘쓰게 되고, 정신이 새롭게 초롱초롱해져서 더욱 기운차게 체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책은 크게 전집과 후집으로 구성됐다. 전집에는 각각 황벽, 조주, 아호 선사를 위시한 39명의 조사들의 법어와 24가지의 공부법이 담겨있다. 후집에는 여러 경전 가운데 가려 뽑은 참선 경전에 요긴한 대목 47가지가 실려 있다.

“경계하는 채찍이 내 손 안에 있으면 빠르게 멀리 달려 마침내 마지막 관문을 뚫을 수 있다”고 한 운서 주평 스님의 말처럼, 책은 참선 수행 중에 몸과 마음이 느슨해지려 할 때마다 등뼈를 곧추세우고 수행에 전력하게는 경책이 되어준다.

선관책진, 선의 관문을 뚫다운서 주평 엮음연과 옮김호메1만3000원

## 잠자던 선도를 밝히다 곽종민 대사의 구도기

도를 뒀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경전을 깊이 연구하거나 모진 세파를 견뎌내다 조금 눈이 트인 것으로는 도를 완전히 이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여기 평생을 신선이 되고자 한 사람이 있다.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국적과 문화를 뛰어넘어 중국 화산파 장문의 자리까지 오른 곽종민 대사다.

곽종민 대사는 1940년 부산 동래에서 태어나, 고려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20년 동안 교직에 몸담아 왔다. 이후 일상에 쉽게 몰입이 도를 궁구하다 마침내 도교발상지인 중국 화산파로 수행길을 떠나게 됐고, 이후 치열한 정진 끝에 화산파 23대 장문인으로 인가를 받았다.

특히 곽종민 대사는 조용헌 교수의 <방외지사:우리시대 삶의 고수들>에 소개되면서 모든 구도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책은 그가 수년간 집필 끝에 완성한 것으로 젊은 시절부터 선도수행을 시작한 한 여성의 성품과 끈기, 도의 경지에 이르기까지의 감동적인 여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지금까지 선도(仙道)는 수천 년 동안 신비스러운 문화로 인식됐다. 특히 선도를 수행한 인물의 대다수가 은사(隱士)와 이인(異人)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이들은 선도의 비밀을 지키고자 제자들에게 구전심수를 했다.

저자는 치열한 선도 여정과 전통 도맥을 잇고 있는 도인들과의 교류, 수심 장애 달하는 화산파의 사지 자료를 통해 그동안 숨어있던 선도를 밝히고 있다. 책은 그동안 저자가 수련과 실천을 통해 깨달은 선도의 참다운 가치와 지혜를 엿볼 수 있다.

도를 뒀는다는 것!곽종민 저음정신세계사1만5000원

이은경 기자

## ‘붓도’ 위빠사나



대한 집착 때문이다. 모든 고통은 이 집

착에서 비롯된다.”

책은 아짠 차 스님이 자신의 체험에서 비롯된 가르침을 통해 실제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안내서다. 특히 아짠 차 스님의 ‘염불을 겸한 위빠사나’는 국내에는 아직 소개되지 않은 수행법으로, 집중력이 약하거나 바쁜 일상생활에서 주의가 산만한 이들에게 특히 좋은 수행법이다. 책은 염불 위빠사나 수행사례를 바탕으로 실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아짠차 저음결연권 옮김솔바림1만8000원

## 마음부처와 함께 살아가



바쁜 현대인들에게 ‘행복한 21세기의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르침이다. 책은 해국 스님이 행복한 인간이 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말씀을 엮은 것이다. 2010년 1년 동안 월간 <법공양>에 실었던 법문들 중 불자들에게 가장 호응이 좋았던 글들만 모았다. 우리 삶 전반에 꼭 필요한 마음 다스리기에 관한 다양한 가르침이 담겨 있는 책은 해국 스님의 다양한 예시를 통해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법문들이 담겨 있다.

해국 저음요림7000원

## 산을 세우고 물을 펼친다



가 수행자들이 선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영흥 스님은 선법문과 선

책은 현대 고승들과의 불꽃 튀는 법기량과 함께 영흥 스님의 오도(悟道) 체험과 선문답 등 구도기가 1인칭 화법으로 서술됐다. 참선 입문자나 제자들이 선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영흥 스님은 선법문과 선

사, 일문일답도 함께 수록했다. 일반적으로 선문답은 간화선 수행자들이 화두로 삼을 만큼 일반 불자들에게는 난해한 면이 있다. 책에 등장하는 선문답 역시 대부분 알음알이와 이론으로는 접근이불가하지만, 선에 관심 있는 독자들의 관심과 공부 길을 열어주기에 가능한 책이다. 스님은 세 번의 깨달음을 체험했다고 술회하면서 깨달음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개인적인 체험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영흥 법문·김성우 엮음비움과 소통1만4000원

佛紀 2555年 辛卯年 Buddha's birthday |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 |

# 대한불교 선각종

## 중정권한대행 총무원장 석정암

원로원장 법경      중회의장 동명      중책연구실장 자공

### 총무원

총무부장 진목    기획부장 행진    교무부장 법인    재무부장 명일    사회부장 원주    문화예술부장 목연    조직부장 은광    감사부장 진하    규정부장 태승  
기획국장 혜현    교무국장 형진    재무국장 선지    사회국장 혜인    문화예술국장 선주    조직국장 진오    감사국장 선정    규정국장 서진

### 교육원

교육원장 해명  
연수부장 법해

### 보건원 복지원 환경원

보건원장 다행  
복지부장 무명  
복지부장 경중  
복지부장 덕성  
환경부장 정각  
환경부장 무공

### 중앙포교원

포교원장 벽해  
포교부장 각림  
포교국장 정진

### 국제불교문화원 및 국제포교원

문화원장 진환  
문화국장 혜룡  
국제포교원장 진덕  
국제포교부장 진제

### 사정원

사정원장 진원  
사정부장 서원  
호법국장 진각  
감찰국장 진철

### 중앙위원회

법규위원장 혜원  
법제고시위원장 원명

### 중앙선원

선원장 도륜  
선원부장 진안

### 국제불교문화교류원

원장 혜룡

### 교구총무원

경주교구원장 진봉  
광주교구원장 혜관  
부산교구원장 원정  
서울교구원장 진보  
인천교구원장 정각  
포항교구원장 성범  
강원교구원장 해국  
전남교구원장 진철

전국 교구본사 주지 일동

광주불교문화원 임직원 일동

전국 선각종 신도회 일동